

미·러, 우크라이나 사태 회담 전 실무 만찬...탐색 속 신경전

미국 "주권국, 자기동맹 선택자유" ...유럽과 공조 러시아 "낙관할 근거 있어...타협에 이를 준비해야"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회담을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실무 만찬을 하며 탐색전을 벌였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끄는 협상단은 이날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서 2시간 넘게 만찬을 겸한 사전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간극이 큰 탓에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에 관한 국제적 원칙, 주권국가가 동맹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에 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외교를 통한 진전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는 또 미국이 유럽의 동맹과 파트너 없이 유럽의 안보에 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셔먼 부장관도 일부 주제에 관

한 논의는 후속 회담을 위해 보류할 것을 강조했다. 12일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13일 러시아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의 경우 미·러 회담에서 지나치게 다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불수 있었다.

미국이 10일 회담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 동시에 동맹과 적극적 조율에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여겨진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충구를 겨냥한 상에서 진전을 보긴 매우 어렵다면서 "몇 주 안에 어떤 돌파구를 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엄청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라브로프 차

관이 이날 사전 협상 후 논의가 "놀라웠다"며 낙관할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미국 측과 대화는 어려웠지만 효율적이었다며 10일 본 회담에서 양측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가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언론 질문에 "미국이 타협에 이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앞서 라브로프 차관은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도 우리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요구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회담이 단 한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실무만찬에서 탐색전을 마친 양국 대표단은 10일 공식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과 러·서방 간 안전보장 문서 채택 등을 본격 논의한다.

이번 미·러 협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약 10만 명의 군대를 배치하자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련국 간 긴장이 고조된



‘푸틴에게 NO 하세요’ 옛 소련의 다양한 지역 출신 활동가들이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가 옛 소련 국가들에 대해 다시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EPA-연합뉴스

가운데 열린다. 러시아는 침공 준비설을 부인하면서, 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 국

삼성 따라잡겠다더니... 중국 반도체사업 '실패'

중국인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따라잡을 최첨단 반도체 제조사를 만들기 위해 거액을 쏟아부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기업 발표와 중국 관영매체 보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새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23억 달러(약 2조7,692억원)로 이중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6개 프로젝트 중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WSJ 지방정부 문건 등 분석 3년간 6개 프로젝트 약 3조 제조기술 통합 등 역량 부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우한홍신반도체제조(HSMC)와 취안신 집적회로(QXIC)다.

삼성전자와 TSMC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14나노미터 이하 공정 제품 양산을 목표로 설립된 두 회사는 몇 년 내로 7나노미터 초미세 공정 제품까지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들 회사는 전직 TSMC 고위 임원을 포함한 대만의 엔지니어 다수를 막대한 연봉 등을 미끼로 스카우트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의 막대한 지원

을 업고 출발한 두 회사는 막대한 투자금을 날리고 지금까지 단 하나의 집도 상업용으로 생산하지 못했다.

최첨단 반도체의 양산까지 적어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결국 HSMC는 지난해 6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고, QXIC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QXIC는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들을 모셔왔으나, 이들의 기술을 한 데 통합할 역량이 부족했다고 한 전직 직원이 밝혔다.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 내 수요의 17%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역량 확대는 중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에 들어간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두 차례 걸쳐 이른바 '빅 펀드'로 불리는 총 520억 달러(약 62조6,000억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을 쟁기 위해 요식업, 시멘트 제조사를 포함한 수만 개 기업이 반도체 관련 회사인 것처럼 등록했다고 WSJ은 전했다. /연합뉴스

밀린 월급 요구에 9만개 '동전테러'

미국 노동부, 연방법 위반 고발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당국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동전 테러'를 저지른 업주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했다.

9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 마일스 위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지난해 30일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

피치트리시티에서 고급차 정비업체인 '오케이 위커 오토웍스'를 운영하는 위커는 지난해 3월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던 전직 직원의 집 앞에 9만여 개의 동전을 쏟아부어 공분을 샀다. 자신과 불화를 겪다 퇴사한 직원 안드레아스 플라텐이 작년 1월 26일 노동부에 915달러(약 11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연은 플라텐의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 통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졌다.



미국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당국에 신고 하자 업주는 동전 9만여개와 욕설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연합뉴스

위커는 당시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옛 직원에게 '동전 테러'를 저지른 위커의 행동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라고 간주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위커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3만6,971달러(약 4,451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일본 신규확진 이틀째 8천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일본에서 9일부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역 비상조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긴급사태에 버금가는 방역 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이하 중점조치)가 적용된 광역지자체는 오키나와현과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들 3개 광역지자체에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점조치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키나와현에선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주류 제공은 가능하다.

야마구치현과 히로시마현에선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되고 주류 제공도 중단된다.

일본에선 작년 9월 코로나19 확진자 급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점조치가 해제되면서 음식점 영업시간 등의 제한도 사라진 바 있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